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본 2013년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특징

정성미 · 성재민*

I. 머리말

2013년 내내 노동시장의 취업자는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근로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2013년 8월 비정규직은 규모는 소폭 증가하였지만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비중 감소는 올 한 해만의 현상이 아니라 2012년 이후 연속 2년째 이어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규모와 구성 변화를 각 연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활용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비정규직 내적구성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인적특성과 근속기간을 고려해 살펴보고, 비정규직의 추세적 변화에 따라 근로조건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비정규직 규모와 구성의 변화

1. 비정규직 비중 감소

2013년 8월 취업자는 25,291천 명으로 전년 8월 대비 432천 명이 증가했다. 종사상지위 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와 임시·일용직 모두에서 감소하였고 상용직(639천 명)에서만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와 임시·일용직이 감소하는 동시에 상용직이 증가하는 추세는

*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mjung@kli.re.kr),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seongjm@kli.re.kr).

2013년 내내 지속되던 현상이다.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는 2005년 이후 지속되던 현상이며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에는 1991년 8월 이래 최대치인 787천 명(2010. 4) 증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3년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5,946천 명으로 전년 8월보다 35천 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32.6%로 전년에 비해 0.7%p 감소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2004년까지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후 600만 명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8월 37.0%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추세적 감소를 지속하며 2013년 8월 현재 32.6%로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세부 고용형태를 보면 비정규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시적 근로는 2004년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2013년 8월 임금근로자의 18.8%를 차지하며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비전형 근로는 2011년 이후 연속 3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지난 10년간 12~13% 수준에서 소소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시간제 근로는 2005년을 제외하고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10%를 넘어섰고, 절대 규모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2003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 8월은 전년에 비해 규모는 약간 증가했고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표 1〉 고용형태별 규모 추이

(단위: 천 명, %)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한시적 근로	비전형 근로	시간제근로
2002. 8	14,030	10,190 (72.6)	3,839 (27.4)	2,063 (14.7)	1,742 (12.4)	807 (5.8)
2003. 8	14,149	9,542 (67.4)	4,606 (32.6)	3,013 (21.3)	1,678 (11.9)	929 (6.6)
2004. 8	14,584	9,190 (63.0)	5,394 (37.0)	3,597 (24.7)	1,948 (13.4)	1,072 (7.4)
2005. 8	14,968	9,486 (63.4)	5,482 (36.6)	3,614 (24.2)	1,907 (12.7)	1,044 (7.0)
2006. 8	15,351	9,894 (64.5)	5,457 (35.6)	3,626 (23.6)	1,933 (12.6)	1,135 (7.4)
2007. 8	15,882	10,180 (64.1)	5,703 (35.9)	3,546 (22.3)	2,208 (13.9)	1,201 (7.6)
2008. 8	16,103	10,658 (66.2)	5,445 (33.8)	3,288 (20.4)	2,137 (13.3)	1,229 (7.6)
2009. 8	16,479	10,725 (65.1)	5,754 (34.9)	3,507 (21.3)	2,283 (13.9)	1,426 (8.7)
2010. 8	17,048	11,362 (66.7)	5,685 (33.4)	3,281 (19.2)	2,289 (13.4)	1,620 (9.5)
2011. 8	17,510	11,515 (65.8)	5,994 (34.2)	3,442 (19.7)	2,427 (13.9)	1,702 (9.7)
2012. 8	17,734	11,823 (66.7)	5,911 (33.3)	3,403 (19.2)	2,286 (12.9)	1,826 (10.3)
2013. 8	18,240	12,295 (67.4)	5,946 (32.6)	3,431 (18.8)	2,215 (12.1)	1,883 (10.3)

주: 1)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

2) 한시적 근로이면서 비전형 근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시적 근로자에도 포함되고, 비전형 근로자에도 포함되므로, 전체 비정규직 수는 한시적 근로+비전형 근로+시간제 근로의 합이 아님. 전체 비정규직 수는 이와 같은 중복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동일하지만 시간제근로의 증가세는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시적 근로자를 세부 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기간제 근로의 비중이 가장 큰데,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3년까지 3년 연속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2 참조).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8월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0.2%p)해 15.1%였으나 규모는 47천 명 증가했다.

한편 정규직과 매우 유사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보이는 반복갱신(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반복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형태)은 시기별 변화가 큰 집단으로 2004년 580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기였던 2009년이 170천 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임금근로자의 2~3%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11년 이후에는 규모와 비중 모두 감소를 하고 있다. 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근접해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좋다고 볼 수 있는 반복갱신에서 추세적인 감소가 지속되는 것은 평균적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면 호출근로와 매우 유사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보이는 기대불가(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고용이 지속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은 편인데, 2013년은 2012년 대비 소폭 증가해 412천 명을 기록하며 반복갱신의 두 배 가까운 규모를 기록했다.

<표 3>을 통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가하는 기간제 근로의 변화를 고용계약 기간별로 구분해 살펴보도록 한다. 기간계약을 1개월 미만 계약한 초단기 기간제의

<표 2> 한시적 근로 세부 형태별 고용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2002. 8	1,536 (10.9)	281 (2.0)	247 (1.8)
2003. 8	2,403 (17.0)	248 (1.8)	362 (2.6)
2004. 8	2,491 (17.1)	580 (4.0)	526 (3.6)
2005. 8	2,728 (18.2)	302 (2.0)	585 (3.9)
2006. 8	2,722 (17.7)	465 (3.0)	439 (2.9)
2007. 8	2,531 (15.9)	555 (3.5)	460 (2.9)
2008. 8	2,365 (14.7)	374 (2.3)	549 (3.4)
2009. 8	2,815 (17.1)	170 (1.0)	521 (3.2)
2010. 8	2,494 (14.6)	305 (1.8)	481 (2.8)
2011. 8	2,668 (15.2)	339 (1.9)	436 (2.5)
2012. 8	2,714 (15.3)	289 (1.6)	400 (2.3)
2013. 8	2,761 (15.1)	259 (1.4)	412 (2.3)

주: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근로자 수와 비중은 2003년 이후 2010년까지 가파르게 감소하다가 이후 2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기간제 근로의 6%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다. 2013년 8월은 전년동월보다 소폭 감소했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한 기간제 근로는 2005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186천 명까지 늘어나 전체 기간제 근로의 42.1%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감소하였고, 꾸준히 3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8월은 전년동월대비 약 6만 명이 증가해 전체 기간제 근로 증가를 이끌었다.

2007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기간제 근로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은 1년 기간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기간제의 49.3%를 차지하며 정점에 도달했지만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계약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의 비중은 큰 변화 없이 10% 미만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반면 3년 초과로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는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7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10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그 수가 크지는 않다.

비전형 근로를 세부 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대부분의 근로형태에서 임금근로자 중 비중이 소폭 감소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파견은 임금근로

〈표 3〉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계약 기간별 추이

(단위: 천 명, %)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2002. 8	728 (47.4)	373 (24.3)	260 (17.0)	90 (5.9)		85 (5.5)
2003. 8	947 (39.4)	698 (29.0)	463 (19.3)	189 (7.9)		105 (4.4)
2004. 8	813 (32.6)	684 (27.4)	641 (25.7)	241 (9.7)		113 (4.5)
2005. 8	824 (30.2)	724 (26.6)	791 (29.0)	262 (9.6)		127 (4.6)
2006. 8	803 (29.5)	747 (27.4)	772 (28.4)	259 (9.5)		140 (5.2)
2007. 8	512 (20.2)	750 (29.6)	851 (33.6)	230 (9.1)		189 (7.5)
2008. 8	400 (16.9)	765 (32.3)	824 (34.8)	191 (8.1)	127 (5.4)	59 (2.5)
2009. 8	255 (9.0)	1,186 (42.1)	1,086 (38.6)	178 (6.3)	78 (2.8)	33 (1.2)
2010. 8	160 (6.4)	856 (34.3)	1,231 (49.3)	152 (6.1)	63 (2.5)	33 (1.3)
2011. 8	168 (6.3)	925 (34.7)	1,264 (47.4)	172 (6.5)	78 (2.9)	60 (2.2)
2012. 8	191 (7.0)	905 (33.3)	1,304 (48.0)	165 (6.1)	78 (2.9)	71 (2.6)
2013. 8	187 (6.8)	964 (34.9)	1,266 (45.8)	160 (5.8)	93 (3.4)	90 (3.3)

주: ()안은 기간제 근로자 중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자 중 비중이 2013년 1.1%로 2007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용역은 2008년 이후 650천 명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임금근로자 중 비중은 2008년 4%에서 2013년 3.5%로 하락했다. 한편 특수고용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04년 4.9%에서 2006년과 2007년 4.0%로, 2013년 3.0%로 감소했고, 절대규모도 감소했다. 가내근로와 일일근로 역시 비중과 규모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표 4〉 비전형 근로의 세부 형태별 규모 추이

(단위: 천 명, %)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2002. 8	94 (0.7)	332 (2.4)	772 (5.5)	235 (1.7)	412 (2.9)
2003. 8	98 (0.7)	346 (2.4)	600 (4.2)	166 (1.2)	589 (4.2)
2004. 8	117 (0.8)	413 (2.8)	711 (4.9)	171 (1.2)	666 (4.6)
2005. 8	118 (0.8)	431 (2.9)	633 (4.2)	141 (0.9)	718 (4.8)
2006. 8	131 (0.9)	498 (3.2)	617 (4.0)	175 (1.1)	667 (4.3)
2007. 8	174 (1.1)	593 (3.7)	635 (4.0)	125 (0.8)	845 (5.3)
2008. 8	139 (0.9)	641 (4.0)	595 (3.7)	65 (0.4)	818 (5.1)
2009. 8	165 (1.0)	622 (3.8)	637 (3.9)	99 (0.6)	883 (5.4)
2010. 8	211 (1.2)	608 (3.6)	590 (3.5)	70 (0.4)	870 (5.1)
2011. 8	197 (1.1)	672 (3.8)	614 (3.5)	75 (0.4)	962 (5.5)
2012. 8	214 (1.2)	682 (3.8)	545 (3.1)	69 (0.4)	871 (4.9)
2013. 8	204 (1.1)	646 (3.5)	545 (3.0)	73 (0.4)	821 (4.5)

주: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비정규직 중 여성, 고령자 비중 증가

〈표 5〉에서 각 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추이를 보면, 각 성별 안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2013년 8월 40.6%인 반면, 남성은 26.5%로 두 배 가까이 높았다. 2004~2007년에는 남녀 비정규직 비중 격차는 약 10%p 정도가 유지되었으나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이후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2009년 이후 더욱 확대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정규직 중 여성의 비중은 2013년 8월 37.9%인 데 반해 비정규직 중 여성의 비중은 53.6%로 절반 이상임이 관찰된다(그림 1 참조). 정규직 중 여성의 비중은 2002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37% 수준을 꾸준히

〈표 5〉 각 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 추이

(단위 : %)

	2003. 8	2004. 8	2005. 8	2006. 8	2007. 8	2008. 8	2009. 8	2010. 8	2011. 8	2012. 8	2013. 8
전체	32.6	37.0	36.6	35.5	35.9	33.8	34.9	33.3	34.2	33.3	32.6
남성	27.6	32.2	31.5	30.4	31.5	28.8	28.2	27.1	27.8	27.2	26.5
여성	39.5	43.7	43.7	42.7	42.1	40.8	44.1	41.8	42.8	41.5	40.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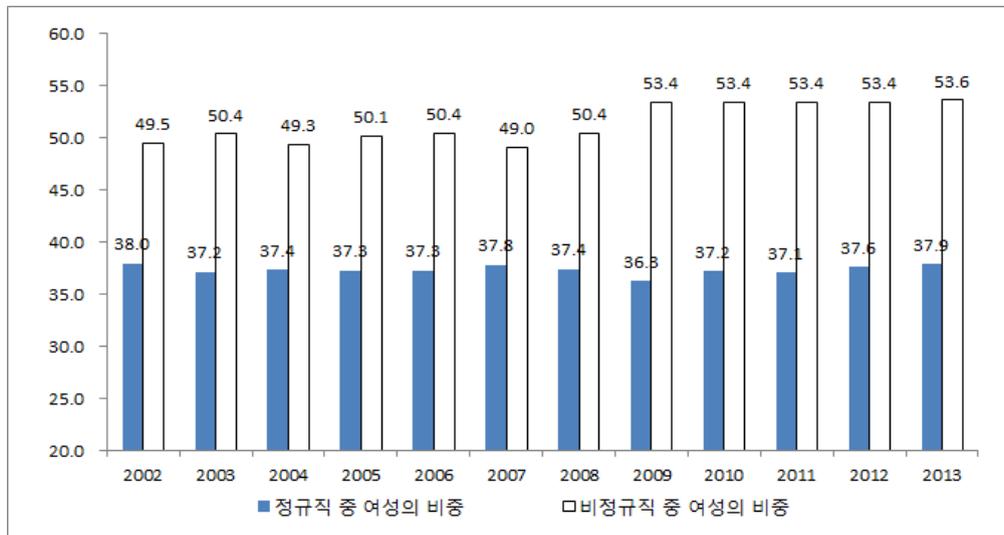
유지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중 여성의 비중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비정규직 내 여성이 급격히 상승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8월 들어 소폭 증가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3년 8월 현재 여성 비정규직(3,187천 명)이 남성 비정규직(2,758천 명)보다 규모가 더 많다. 전년동월대비 남성은 1천 명 증가했지만 여성은 33천 명이 증가해 2013년 비정규직은 여성에 의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남성에서도 5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비정규직이 소폭 증가했다.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비교해 보면 남성은 2007년 8월에서 2013년 8월까지 149천 명이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여성은 392천 명이 증가했다. 2007년 8월에서 2013년 8월까지의 변화를 성·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의 감소는 노동시장의 핵심연령대인 25~49세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35~39세의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반

〈그림 1〉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 여성의 비율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면 남성 5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비정규직이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2008년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여성은 2007년 8월에서 2013년 8월까지 25~39세, 그 중에서도 35~39세의 감소가 크게 나타났지만, 40세 이상, 특히 고령으로 갈수록 고령층에서는 비정규직의 증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났다.

규모뿐 아니라 각 연령대의 임금근로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을 성별로 나누어 보아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핵심연령층인 20~40대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5년에서 2013년까지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과 비교해도 2013년의 핵심연령층 비정규직 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그러나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5년, 2009년과 유사하거나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50세 이상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2005년, 2009년에 비해 소폭 낮아졌지만 비정규

〈표 6〉 각 성·연령별 비정규직 규모 및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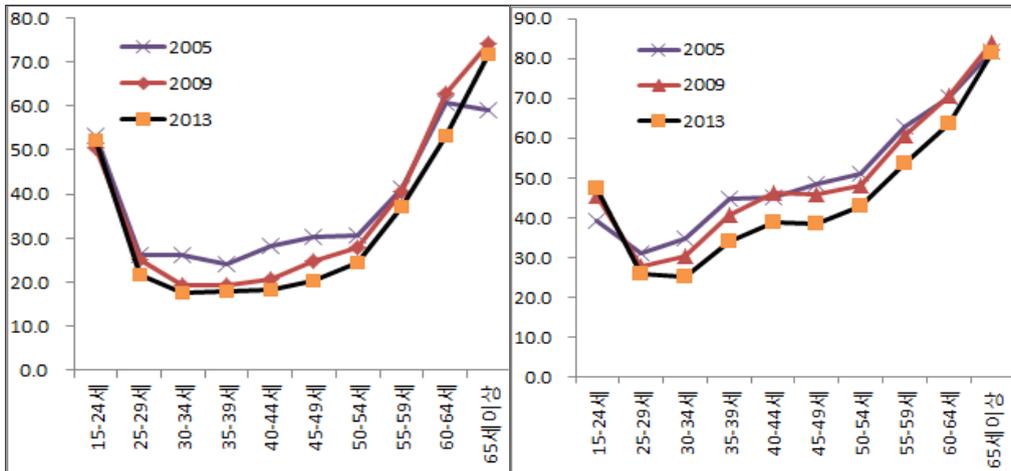
(단위: 천 명)

		규모							증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8	09	10	11	12	13	2007→2013
남성	전체	2,907	2,699	2,681	2,649	2,791	2,757	2,758	-208	-18	-32	142	-34	1	-149
	15~24세	255	239	259	253	268	284	301	-16	20	-7	15	17	17	46
	25~29세	361	332	306	277	289	246	240	-29	-26	-29	12	-43	-6	-121
	30~34세	372	342	285	276	291	275	273	-30	-57	-9	15	-16	-2	-99
	35~39세	384	344	298	274	283	304	261	-40	-46	-24	9	22	-43	-122
	40~44세	349	288	274	282	283	274	278	-60	-15	8	1	-9	4	-71
	45~49세	309	306	305	277	298	281	273	-2	-2	-28	22	-17	-8	-36
	50~54세	266	257	263	291	304	298	287	-8	6	28	13	-6	-11	22
	55~59세	241	223	235	262	270	270	307	-17	11	28	7	0	36	66
60세 이상	371	367	457	458	506	523	538	-4	90	1	48	17	15	167	
여성	전체	2,796	2,746	3,073	3,036	3,203	3,154	3,187	-50	327	-36	167	-49	33	392
	15~24세	368	360	367	370	384	401	403	-8	7	4	14	16	2	35
	25~29세	318	306	315	317	302	280	261	-12	9	2	-15	-23	-19	-57
	30~34세	266	221	238	247	270	239	249	-45	18	9	23	-31	10	-17
	35~39세	361	358	360	313	319	289	279	-3	2	-47	7	-30	-10	-82
	40~44세	385	381	424	417	430	403	391	-4	43	-8	13	-26	-12	6
	45~49세	354	358	405	377	406	399	377	3	48	-28	29	-7	-22	22
	50~54세	262	273	319	342	388	372	375	11	46	23	46	-16	3	113
	55~59세	192	192	224	226	250	277	323	1	32	2	24	27	47	131
60세 이상	289	297	420	427	454	495	529	8	122	8	26	41	35	24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그림 2] 연령별·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의 연도별 변화(남성 좌, 여성 우)

(단위 : %)



주: 왼쪽이 남성, 오른쪽이 여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직 규모가 가장 컸던 65세 이상에서 비정규직 비중의 변화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55세 이상 남성 고령층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은 2005년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추세에서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여성화가 포착되었다면, 최근에는 고령자 특히 여성 고령자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남과 동시에 남녀 모두 중핵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남성 핵심연령층의 감소가 더 커지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3. 근속연수별 비정규직의 변화

2013년 8월 비정규직의 규모는 소폭 증가했지만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신규 입직자가 증가했거나, 신규입직자는 감소했더라도 평균근속기간이 늘어나 발생할 수 있다. 근속기간 3개월 미만자를 신규입직으로 간주하고 분석한 결과, 한시적 근로 가운데 기간제와 반복갱신자를 제외한 모든 고용형태에서 신규입직이 감소했다(표 7 참조). 신규입직의 감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20천 명)보다는 정규직(-41천 명)에서 더 크게 감소했다.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침체기였던 2008년에서 2009년에는 기간제에서 신규채용이 크게 증가하고 용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형태에서 소폭 증가했지만 이는 일시적 증가효과였고, 이후 증가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비전형 근로의 대부분은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표 7〉 고용형태별 신규입직자(근속기간 3개월 미만) 추이

(단위: 천 명)

		규모						증 감					
		2005	2007	2009	2011	2012	2013	2005	2007	2009	2011	2012	2013
임금근로자 전체		4,217	3,243	3,007	2,686	2,505	2,445	-209	-468	357	-127	-181	-60
정규직		1,618	1,193	906	931	820	780	-176	-251	25	-81	-111	-41
비정규직		2,599	2,050	2,101	1,754	1,684	1,665	-34	-217	332	-46	-70	-20
한시적 근로	한시근로	1,563	970	1,017	640	609	626	-49	-343	266	-1	-30	17
	기간제	1,229	756	842	497	480	484	-20	-324	283	28	-17	4
	반복갱신	55	47	14	21	11	25	-46	-7	-19	0	-11	14
	기대불가	278	166	161	121	119	118	17	-12	2	-29	-2	-1
비전형 근로	비전형	1,021	1,021	1,021	976	888	855	-31	60	88	-25	-88	-33
	파견	39	45	29	30	29	27	-3	5	0	-6	-2	-2
	용역	163	150	129	106	105	92	1	-13	-9	8	-1	-13
	특수고용	177	138	95	68	68	49	-65	-31	6	-2	0	-19
	가내근로	80	64	52	33	30	24	-23	-19	18	-5	-2	-6
	일일근로	671	751	817	801	725	719	50	128	79	-8	-76	-6
시간제근로		670	598	614	586	647	629	-40	-42	76	-28	60	-1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전체적으로 신규입직이 감소하거나 증가했다더라도 규모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총 규모가 증가한 것은 평균근속기간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8월 24.3개월이던 비정규직의 평균근속기간은 2009년 21.2개월로 급락했으나(이는 근

〈표 8〉 고용형태별 평균근속기간 추이

(단위: 개월)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임금근로자 전체		55.2	57.1	58.6	59.4	61.2	64.0	66.8
정규직		71.3	73.9	78.7	77.3	79.2	82.2	84.8
비정규직		26.3	24.3	21.2	23.6	26.5	27.7	29.6
한시적 근로	한시근로	31.5	28.9	23.2	26.9	30.7	31.4	32.7
	기간제	29.2	28.1	23.2	25.6	28.7	29.9	31.0
	반복갱신	57.2	52.5	46.7	59.7	62.1	57.9	67.9
	기대불가	13.5	16.1	15.6	12.8	18.0	22.2	21.8
비전형 근로	비전형	20.3	20.8	20.7	23.3	24.3	26.3	29.2
	파견	25.1	29.0	25.5	30.0	35.1	33.0	34.2
	용역	25.7	23.9	25.3	30.3	29.1	30.9	34.3
	특수고용	35.2	39.8	39.7	45.1	49.2	54.2	60.7
	가내근로	15.9	10.5	12.2	14.2	11.2	16.4	23.5
시간제 근로		11.4	11.8	12.0	13.4	15.9	17.2	18.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속 3개월 미만의 대규모 신규입직의 영향으로 보임)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증가해 2013년 8월 가장 긴 평균근속기간인 29.6개월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규직은 2009년 비정규직과 다르게 평균근속기간이 늘어났고, 2010년 소폭 감소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평균근속기간이 증가하고 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 중 기대불가자를 제외하고 모든 형태에서 2012년 8월 대비 평균근속기간이 증가했으며 모든 고용형태의 평균근속기간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이후 가장 긴 근속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시적 근로 중 반복갱신과 비전형 근로 가운데 특수고용의 2013년 8월 평균근속기간은 각각 67.9개월, 60.7개월로 긴 평균근속기간을 보이고 있으며 특수고용은 2007년 대비 두 배 가깝게 늘어났다.

4. 산업별 특징

산업별 비정규직 비중을 보면, 파견업이 많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농림어업, 건설업 등에서 비정규직 고용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9 참조).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도 평균 이상의 비정규직 비중을 보이는 산업이며, 반면 제조업은 광업 등과 함께 비정규직 고용 비중이 낮은 산업에 속하며 2005년 이후 꾸준히 비정규직 비중이 큰 폭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하고 있다.

산업 내 비정규직 비중은 몇 개의 산업을 제외하고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업은 10% 미만까지 감소했고,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5년 20%가 넘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 10%대를 기록했다. 또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비해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감소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고 이 산업들은 2007년에서 2013년까지 10%p가량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최근 취업자 증가를 가장 강하게 주도하고 있는 산업으로 비정규직에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3년 8월 523천 명을 기록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정규직의 규모는 전년동월대비 34천 명 증가하였지만, 비정규직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2005년 이후를 추세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 규모는 세 배 이상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중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07년 26.4%에서 2013년 35.2%로 비정규직 비중이 8.8%p 증가하였다. 한편 공공행정은 금융위기 때 정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늘리느라 소폭 증가했지만, 2013년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표 9> 산업별로 비정규직 및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규모					산업내 비정규직 비중				
	2005	2007	2009	2012	2013	2005	2007	2009	2012	2013
농림어업	114	99	109	91	83	(78.1)	(67.8)	(67.3)	(66.9)	(61.5)
광업	2	3	3	1	1	(14.3)	(17.6)	(15.0)	(7.7)	(6.3)
제조업	710	690	523	499	503	(20.7)	(20.5)	(16.2)	(14.0)	(13.9)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3	9	9	12	13	(19.1)	(11.7)	(9.5)	(15.8)	(13.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	14	13	16	15	13	(28.0)	(23.2)	(25.4)	(21.4)	(18.6)
건설업	838	807	727	691	693	(63.1)	(57.9)	(54.9)	(52.5)	(51.3)
도매 및 소매업	653	650	634	655	626	(35.3)	(33.5)	(32.8)	(30.5)	(29.5)
운수업	170	173	144	146	153	(26.7)	(25.6)	(21.4)	(19.9)	(20.1)
숙박 및 음식점업	540	457	421	452	507	(48.4)	(38.9)	(38.2)	(39.8)	(41.0)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52	163	130	138	151	(26.9)	(26.6)	(21.3)	(21.9)	(23.2)
금융 및 보험업	321	378	313	319	336	(46.5)	(50.8)	(43.8)	(39.9)	(39.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7	115	135	139	138	(40.4)	(38.6)	(44.7)	(44.4)	(41.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27	159	127	139	151	(25.0)	(26.7)	(17.6)	(15.4)	(17.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559	752	721	865	843	(77.6)	(80.3)	(79.1)	(79.4)	(77.1)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70	196	524	282	282	(21.8)	(24.5)	(44.5)	(29.2)	(28.7)
교육서비스업	467	470	513	553	520	(37.2)	(34.4)	(34.9)	(40.2)	(37.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6	179	317	489	523	(26.9)	(26.4)	(33.6)	(36.9)	(35.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2	102	99	124	119	(46.2)	(45.9)	(42.9)	(49.4)	(46.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150	176	184	205	196	(27.6)	(28.8)	(28.0)	(28.5)	(26.8)
가구내 고용활동 및 기타	96	108	101	95	96	(78.7)	(67.5)	(73.2)	(59.4)	(55.2)
국제 및 외국기관	3	4	2	1	0	(11.5)	(22.2)	(15.4)	(10.0)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Ⅲ. 비정규직 임금 및 근로조건 변화

1. 임금

<표 10>과 <표 11>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수준과 시간당 임금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2013년 8월 비정규직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상대적인 근로조건은 평균적으

〈표 10〉 근로형태별 임금수준(월평균)

(단위 : 만 원, %)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임금근로자 전체		159.3 (3.3)	174.6 (5.4)	185.2 (0.3)	194.9 (5.2)	203.2 (4.3)	210.4 (3.5)	218.1 (3.7)
정규직		184.6 (4.2)	200.9 (5.3)	220.1 (3.5)	229.4 (4.2)	238.8 (4.1)	246.0 (3.0)	254.6 (3.5)
비정규직		115.6 (0.4)	127.6 (6.5)	120.2 (-7.3)	125.8 (4.7)	134.8 (7.1)	139.3 (3.3)	142.8 (2.5)
한시적 근로	한시근로	124.0 (0.7)	144.0 (9.7)	130.1 (-10.8)	140.0 (7.6)	150.2 (7.3)	156.7 (4.3)	160.2 (2.2)
	기간제	125.8 (6.0)	141.9 (9.8)	131.1 (-12.0)	136.0 (3.7)	146.3 (7.6)	154.5 (5.6)	158.1 (2.3)
	반복갱신	169.2 (-0.7)	194.9 (9.9)	193.1 (4.2)	226.3 (17.2)	220.2 (-2.7)	214.7 (-2.5)	241.4 (12.4)
	기대불가	92.4 (0.4)	94.5 (-0.7)	103.9 (-1.2)	106.1 (2.0)	119.6 (12.7)	129.7 (8.5)	123.4 (-4.9)
비전형 근로	비전형	108.1 (1.2)	111.2 (6.3)	119.1 (-0.5)	124.9 (4.9)	132.1 (5.8)	138.2 (4.6)	141.2 (2.1)
	파견	131.6 (3.5)	134.1 (6.4)	141.4 (-4.0)	141.0 (-0.3)	152.4 (8.0)	162.0 (6.3)	149.9 (-7.5)
	용역	94.8 (2.8)	102.4 (9.7)	111.1 (2.5)	117.5 (5.8)	122.4 (4.2)	126.4 (3.2)	135.4 (7.1)
	특수고용	142.2 (2.3)	142.2 (7.6)	152.9 (-1.6)	163.0 (6.6)	179.2 (9.9)	181.3 (1.2)	180.1 (-0.7)
	가내근로	56.7 (0.5)	56.8 (-4.7)	60.0 (23.4)	43.5 (-27.5)	52.0 (19.4)	66.3 (27.6)	60.7 (-8.4)
일일근로	86.0 (2.7)	89.2 (2.2)	95.3 (-3.1)	104.0 (9.2)	105.5 (1.4)	115.2 (9.2)	121.1 (5.2)	
시간제근로		52.2 (-3.1)	56.1 (1.9)	53.5 (-6.7)	56.5 (5.5)	60.4 (7.0)	60.8 (0.5)	65.4 (7.7)

주: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로 하락한 특징이 관찰된다.

먼저 지난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임금을 보면, 2013년 8월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54.6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했고,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42.8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했다. 정규직의 임금 증가율은 2012년에 비해 높아진 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2012년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2013년 8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은 56.1%로 2012년(56.6%)보다 격차가 확대되었고, 2007년 63.5%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근로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 중 기대불가에서 월평균 임금이 감소(-4.9%)하였고, 반복갱신과 기간제는 2012년 대비 각각 12.4%, 2.3% 증가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비교적 월평균 임금 수준이 높은 특수고용(-0.7%)과 파견근로(-7.5%)와 가내근로(-8.4%)는 2012년 8월 대비 임금이 감소한 반면, 용역근로(7.1%), 일일근로(5.2%)는 전년동월대비 임금이 증가했다. 한편 시간제 근로의 월평균 임금은 2013년 8월 7.7% 증가율을 보였다.

월평균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을 이용해 시간당 임금으로 전환하여 상대임금격차를 분석해 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소폭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크기가 매우 작았다(표 11 참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2013년 8월 64.8% 수준으로 2012년 8월 대비 0.5%p 증가했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상대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가

〈표 11〉 근로형태별 임금수준(시간당)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정규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71.6	73.5	70.5	71.0	70.9	68.0	61.5	62.5	65.3	64.3	64.8
한시적 근로	한시근로	70.4	75.9	72.4	74.3	76.1	72.7	64.1	66.2	69.3	69.0	69.1
	기간제	70.7	75.6	74.5	74.6	76.3	75.1	65.5	65.8	69.0	69.4	69.2
	반복갱신	88.4	96.3	89.1	94.0	98.1	88.4	87.2	100.8	93.7	86.5	96.0
	기대불가	55.8	54.7	54.1	51.3	48.0	51.6	48.7	46.4	52.4	54.2	50.9
비전형 근로	비전형	66.3	66.0	63.2	60.1	60.1	59.4	57.0	57.4	58.5	58.7	58.3
	파견	68.0	78.0	76.1	66.3	70.8	71.3	69.7	64.5	66.5	73.4	62.8
	용역	49.4	50.0	48.4	46.1	48.4	49.1	47.9	50.3	49.8	48.9	52.0
	특수고용	82.9	86.1	83.2	81.4	79.9	79.7	75.4	77.1	82.4	78.4	76.1
	가내근로	36.4	43.1	47.8	42.9	34.9	36.4	37.1	31.3	34.9	41.6	33.3
	일일근로	63.2	55.2	53.7	51.5	52.0	51.2	47.6	49.0	47.4	50.1	51.5
시간제근로		85.1	80.2	76.7	73.1	66.6	64.7	56.2	55.5	59.3	53.3	55.5

주 :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경우 상대수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2010년, 2011년 연속으로 회복했지만 2012년 다시 격차가 확대되었고, 2013년은 미세한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여전히 2007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시적 근로 중 기간제와 기대불가는 2013년 8월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 수준이 각각 0.2%p, 3.3%p 낮아졌다. 기간제는 여전히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대불가는 정규직 임금의 절반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7년과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반면 반복갱신은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 수준이 상당히 증가해 2013년 8월 정규직의 96.0% 수준을 보여 2007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형 근로 중 용역과 일일근로를 제외한 파견근로, 특수고용, 가내근로의 상대임금 격차는 2012년 8월 대비 더 커졌으며, 특히 파견근로(-10.6%p), 가내근로(-8.3%), 특수고용(-2.3%p)의 상대임금격차 확대가 크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용역근로를 제외한 비전형 근로에서도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시간당 임금으로 봤을 때 2013년 8월 시간제 근로는 정규직 임금의 절반수준(55.5%)으로 2012년 8월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2007년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가운데 2007년에 비해 상대임금 수준이 회복되지 못하고 격차가 가장 크게 나는 고용형태는 시간제 근로로 상대임금 수준이 2007년 66.6%→2013년 55.5%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고, 추세적으로 2011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이 하락하는 것이 관찰된다.

상대적으로 일자리 질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기대불가와 용역근로를 제외한 근로형태 모두에서 상대임금격차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상대임금격차가 국제금융위기 이전보다 커져서 여전히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 보기 위해 Blau & Kahn(1996)를 따라¹⁾ 임금격차 분해를 해 보았다.

이 분해 방법에 따르면 시간에 따른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변화는 관찰된 요소의 변화와 관찰되지 않은 요인에 근거한 변화로 구분될 수 있다. 관찰된 요소의 변화는 다시 분포 자체의 변화와 이 요소의 가격 변화로 분해될 수 있으며, 미관찰된 요인의 변화도 미관찰 요인의 분포 변화와 미관찰된 요인의 가격 변화로 분해될 수 있다. 이 중 (미)관찰된 가격요인은 임금차별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 이 요인의 설명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관찰된 요소의 분포 변화는 이를테면 노동시장 핵심연령대(30대나 40대 같은)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줄어들고 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하는 변화 같은 것을 의미한다. 아무래도 이들 연령대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줄어든다면 비정규직의 평균적인 임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생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증가하게 된다.

관찰된 요소의 가격구조 변화는 이를테면 같은 30대 근로자에 대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임금을 더 많이 올려주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격구조 변화가 모두 차별의 변화로 환원되지는 않지만, 차별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차별의 강화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벌어졌다면 가격구조 변화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관찰되지 않은 요소의 분포 변화는 회귀식을 추정하고 남은 잔차가 있을 것인데 이 잔차는 회귀식에 들어간 설명변수들(관찰된 요소들)로 설명되고 남은 임금변동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 설명되고 남은 임금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잔여 임금격차라 하는데, 이 잔여 임금격차도 분포 변화와 가격 변화를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위 “스펙”은 데이터 상에서 세밀하게 구분할 수 없어 미관찰 요소가 된다. 스펙 좋은 사람은 과거보다 지금 더 정규직 일자리를 쉽게 가질 수 있게 노동시장 상황이 변화했고, 스펙 나쁜 사람들은 과거보다 지금 더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기 어렵게 된 상황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정규직은 스펙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비정규직은 과거보다 스펙 나쁜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스펙에 대한 보상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전에는 정규직 임금의 50%쯤 되던 비정규직 평균임금 수준이 그보다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관찰 요소인

1) Blau, F. and L. Kahn(1996), “Wage Structure and Gender Earnings Differential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conomica* 63(250)에서 이용된 방법을 따랐다.

스펙의 분포변화에 따른 임금격차 증가가 된다.

또는 과거보다 기업에서 스펙 좋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게 된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안에 스펙 좋은 사람이 더 많을 것이고, 대개 스펙 좋은 사람들이 임금도 높므로, 정규직 고임금층의 임금은 정규직 저임금층이나 비정규직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정규직 저임금층 대비 비정규직 임금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정규직 고임금층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미관찰 요소인 스펙의 가격변화에 따른 임금격차 증가가 된다. 미관찰 요인과 관련된 가격변화 효과도 차별적인 보상의 측면을 포함할 수 있겠다.

비교 대상시기는 2007년 8월, 2012년 8월, 2013년 8월로 하였다. 2008년은 내수침체가 있었던 시기로 이로 인한 고용변동이 컸다. 경기침체가 오면 우선적으로 변동이 일어나

〈표 12〉 시기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변화 분해(시간당 임금)

		통제변수의 구성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통제변수의 가격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미관측 구성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미관측 가격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총구성변화 효과	총가격변화 효과
'12.8 ~ '13.8	연령	0.0080	-0.0023	-0.0054	0.0041	0.0026 (58.7%)	0.0018 (41.3%)
	연령 · 성	0.0070	-0.0024	-0.0024	0.0022	0.0046 (103.7%)	-0.0002 (-3.7%)
	연령 · 성 · 학력	0.0070	-0.0024	-0.0034	0.0032	0.0036 (80.7%)	0.0009 (19.3%)
	연령 · 성 · 학력 · 근속	0.0066	-0.0066	0.0051	-0.0006	0.0117 (262.6%)	-0.0073 (-162.6%)
	연령 · 성 · 학력 · 근속 · 직업 · 산업	0.0030	-0.0058	0.0076	-0.0004	0.0106 (237.6%)	-0.0061 (-137.6%)
	연령	0.0600	0.0013	0.0543	0.0095	0.1143 (91.4%)	0.0108 (8.6%)
'07.8 ~ '13.8	연령 · 성	0.0741	0.0053	0.0395	0.0062	0.1136 (90.8%)	0.0115 (9.2%)
	연령 · 성 · 학력	0.0739	0.0057	0.0391	0.0063	0.1131 (90.4%)	0.0120 (9.6%)
	연령 · 성 · 학력 · 근속	0.0985	-0.0173	0.0434	0.0004	0.1419 (113.5%)	-0.0168 (-13.5%)
	연령 · 성 · 학력 · 근속 · 직업 · 산업	0.1018	-0.0007	0.0237	0.0003	0.1255 (100.3%)	-0.0004 (-0.3%)

주: 각 연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 실질시간당 임금에 로그를 취해 종속변수로 이용했으며, 연령은 연령 및 연령 제곱, 근속은 근속 개월 그대로, 여성 비중은 여성 더미, 학력은 초졸을 기준으로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더미, 산업은 산업대분류(제조업 기준), 직종은 직종대분류(단순 노동자 기준)로 하여 회귀식을 추정하였음. 회귀식 추정결과 보고는 원고 분량상 생략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는 것이 비정규직이므로, 이미 상대임금이 떨어지는 등의 변화가 이 시기에 나타났다. 이를 감안하여 내수침체가 시작되기 전인 2007년 8월을 비교의 시작 시점으로 삼았다. 결과를 보면 전체 변화를 100이라 볼 때 통제변수로 무엇을 이용하는가에 관계없이 구성변화 효과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변화는 격차를 줄이는(-) 방향이거나 영향 자체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할 때 정규-비정규 간 임금격차가 증가하긴 했지만, 이러한 증가가 차별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며, 비정규직 내부 인적 구성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다.

특히 어떤 구성요인이 중요했는지를 보면, 연령과 성별의 분포변화만으로도 2007년 8월과 2013년 8월 간 임금격차 증가분(12.5%p, 단, 로그 포인트 격차임) 중 11.4%p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보았던 노동시장 중핵연령대에서 비정규직 비중의 하락, 비정규직 중 여성의 비중 증대만으로도 전체 임금격차 증가분의 상당수 90/8%(=11.4/12.5)가 설명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근속, 학력, 직·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12.6%p로 격차 증가의 전부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8월과 2013년 8월을 비교해 보면 연령분포 변화는 전체 격차 증가 0.44%p(이는 로그 포인트임) 중 0.26%p를 설명해 절반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성별과 학력을 추가하면 0.36%를 설명해 격차 증가의 약 8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속, 직업 및 사업을 추가하면 격차가 1.1%p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격차 증가를 크게 능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근속을 추가할 때 분포 설명력이 2배 이상 증가하는 현상은 2007년과의 비교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므로, 분포 설명력이 다소 더 증가한다는 수준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 사회보험 가입

지역가입자를 제외하고 사업장 가입자만 고려할 경우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2012년 8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가입률이 소폭 증가하였다. 먼저 국민연금을 보면, 2013년 8월 기준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1.2%, 비정규직은 39.2%로 정규직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8월 40% 정점을 기록한 이후 아직까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체 고용형태 가운데 반복갱신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가장 높으며 2013년 8월 정규직보다 높은 가입률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은 파견근로, 용역근로, 기간제 근로는 60% 수준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 파견근로와 기간제 근로의 가입률은 2012년 8월 대비 감소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파견근로의 가입률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

〈표 13〉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8월 기준)

(단위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2004	2007	2012	2013	07→13	2004	2007	2012	2013	07→13	2004	2007	2012	2013	07→13	
임금근로자 전체	59.5	63.2	66.5	67.6	4.4	61.3	64.4	69.9	71.3	6.9	52.1	55.3	61.2	62.4	7.1	
정규직	72.5	76.3	80.3	81.2	4.9	73.8	76.7	82.2	83.5	6.8	61.5	64.3	70.4	71.8	7.5	
비정규직	37.5	40.0	39.0	39.2	-0.8	40.1	42.5	45.4	46.2	3.7	36.1	39.2	42.7	43.0	3.8	
한시 적근 로	한시근로	47.8	57.2	58.6	57.8	0.6	50.5	60.0	67.7	67.4	7.4	45.5	55.5	62.0	61.8	6.3
	기간제	48.3	59.3	62.3	61.1	1.8	50.9	62.7	72.4	72.0	9.3	45.8	57.6	65.8	65.3	7.7
	반복갱신	76.2	83.5	80.2	82.9	-0.6	79.0	84.6	83.7	85.1	0.5	72.8	81.2	79.6	82.6	1.4
	기대불가	13.8	13.5	18.0	19.6	6.1	17.4	15.8	24.1	24.7	8.9	14.0	12.7	23.7	25.0	12.3
비전 형근 로	비전형	25.7	23.0	23.0	23.4	0.4	29.7	27.7	32.5	32.7	5.0	25.2	23.9	29.9	29.6	5.7
	파견	62.8	66.2	64.0	63.8	-2.4	66.0	67.4	70.0	73.7	6.3	63.7	67.9	70.2	70.7	2.8
	용역	53.7	55.5	53.4	53.6	-1.9	68.5	73.0	81.8	82.0	9.0	52.8	59.6	68.0	68.0	8.4
	특수고용	26.1	9.1	3.8	4.5	-4.6	28.0	8.7	5.6	5.0	-3.7	24.1	7.9	5.8	5.6	-2.3
	가내근로	13.8	1.4	5.8	17.5	16.1	14.9	1.4	5.8	18.5	17.1	13.8	1.4	5.7	17.1	15.7
일일근로	0.5	0.4	0.2	0.6	0.2	0.3	0.8	0.2	0.6	-0.2	1.6	0.7	4.4	4.0	3.3	
시간제근로	2.4	3.3	12.2	13.5	10.2	3.7	4.0	14.6	17.9	13.9	3.6	3.7	14.8	17.2	13.5	

주: 각 연도 8월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그 외 대부분의 고용형태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기대불가, 특수고용, 가내근로, 일일근로, 시간제 근로는 20% 이하의 매우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증감의 양상은 형태별로 상이한데 특수고용은 지속적으로 가입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시간제 근로와 기대불가자는 가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내근로의 경우 2013년 8월 가입률이 크게 증가했지만, 2004년에도 이처럼 높은 증가를 한 경우가 있어 올해의 증가가 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13년 8월 기준 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83.5%인 반면, 비정규직은 46.2%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2년 8월 대비 정규직은 1.3%p, 비정규직은 0.8%p 증가해 정규직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률이 정규직 가입률보다 높은 반복갱신과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은 용역근로, 파견근로는 2012년 8월 대비 소폭 증가했다. 대체적으로 건강보험 가입률이 증가한 가운데 시간제 근로는 2007년 8월 4.0%에서 2013년 8월 17.9%로 13.9%p나 증가해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 근로와 파견근로는 건강보험 가입률이 소폭 감소했다.

2013년 8월 기준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1.8%, 비정규직은 43.0%로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했으나, 비정규직의 가입률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고용보험 가입률의

변화추세는 국민연금 가입률의 변화와 그 흐름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비교적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은 반복갱신, 파견근로, 용역근로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하거나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고, 기간제 근로와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낮은 수준이던 기대불가, 가내근로, 시간제 근로에서 증가하였다.

IV. 결 론

지금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8월 자료를 이용해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변화를 분석했다. 2013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은 규모는 소폭 증가했지만 비중은 감소했는데, 비정규직 비중의 감소는 2012년 이후 연속으로 이어졌다. 비정규직은 기간제와 기대불가, 시간제 근로에서 소폭 증가하였고 비전형 근로 대부분이 감소하였다. 반면 비중은 대부분 고용형태에서 감소하거나 전년동월과 동일했다.

2013년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의 변화는 비정규직 내 고용구성의 변화가 상당히 반영된 결과로 무엇보다도 인적구성의 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여성, 고령자 중심으로 비정규직화가 진행되었고, 남녀 모두 핵심연령층에서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특히 남녀 모두 55세 이상 고령층에서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함과 동시에 남성 핵심연령(20~40대)의 감소가 더 커지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근속기간으로 보면,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간제의 경우 3개월 미만 초단기자는 줄어들고 동시에 1개월이상~1년의 계약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시간제 근로를 비롯하여 비전형 근로의 모든 고용형태에서도 신규입직은 감소한 반면 평균근속기간은 모두 증가하였다.

이러한 구성의 변화에서 누적적으로 남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평균적으로 하락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더 커졌고, 국제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소폭 증가에 그쳤고, 그마저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다만, 이와 같은 임금격차 확대가 차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비정규직 내 여성이나 고령층의 비중 증가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는 주요 연령대에서 비정규직의 비중 하락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 구성변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KLI**